

분류	70인 요원
제목	중직자 개인 전도 연결망
성경	베드로전서 3:8-12
일시	2009년 6월 30일
장소	서울 예원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베드로전서 3:8-12)

- 0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 0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 요약 자료 ♣

☞ 서론

▶중직자 개인이 전도 연결망을 만드시라.
중직자분들은 행1:8절을 꼭 붙잡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뻥전 3:8-12절을 꼭 붙잡아야 한다. 중직자 분들은 절대로 시험들지 말고 무조건 가서 목사님을 300% 도우라.
그래놓고 중직자들은 뭐하느냐?

1. 만남

- ▶지금부터 만남을 시작하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시간만 내도 된다.
- (1)상담
 - ▶장로님들이 신앙상담해서 힘을 주라. 이것이 지교회의 시작이다.
 - (2)새가족
 - ▶새가족들을 만나보라. 그러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상상외로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상상외로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분들을 도와주면...장로님이 하는 것은 다르다. 그 사람이 평생에 잊지 않을 수 있다.
 - (3)엘리트
 - ▶교회 안에는 생각외로 엘리트가 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들어가도록...
 - (4)5인 1조
 - ▶5인 1조는 왜 만들라고 하는가? 장로님들이 여러 분야에 소스를 두고 통하라는 말이다. 이해도 하라는 것이다.
 - (5)중직자 기획팀
 - ▶교회에 가서 중직자들은 전부 중직자 기획을 하시고, 기획팀을 모으라. 여기서 많은 자료도 나오고, 많은 정보도 보이고, 많은 깨달음도 온다.

2. 시작

- ▶지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 (1)주일
 - ▶지교회는 어디가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과 상담을 계속하면 굉장히 많이 보인다.
 - (2)제자
 - ▶이러다보면 아주 중요한 제자가 보인다.
 - 1)분명히 램넛트 가운데 답난 아이가 있다.
 - 2)다른 중직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가운데 답난 사람
 - 3)아줌마 가운데 답난 사람을 붙잡으라. 이것이 지교회 시작이다.
 - (3)롬16:23절 팀을 구성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램넛트를 키울 것인가? 이런 후원조직, 가이오와 그 형제 구아도...
 -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다.

3. 진행

- ▶지교회를 진행하는데는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1)행1:12-14,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굉장한 진행이다.
 - (2)행6:1-7, 곳곳에 중직자들이 빛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알아들은 사람을 세운 것이다.
 - (3)행9:1-43,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가 확 깔렸다.
 - (4)행11:19,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중직자들이 뭉쳤는데 이것이 시대를 바꾸는 안디옥
 - (5)행13:1-4, 드디어 선교, 아시아 문이 열리는데 이쪽으로 나갔다.

- (6)행16:6-10, 선교의 문이 안 열릴 때 더 중요한 마게도나.
- (7)롬19:21, 응답보다 더 중요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 ▶정말로 기도응답은 기도제목 없는데 받는 것이다.
- (1)임마누엘(성령)-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다.
 - (2)응답- 진짜 누리면 기도 안했는데 응답이 온다. 이것이 진짜 응답이다.
 - (3)감사- 그러면 중직자 속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쌓이게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이런 것은 굉장히 내 영혼이 치유와 힘을 얻었다는 말이 된다.
 - ▶마6:33,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기도 안했는데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중직자 분들이 꼭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end)

◆ **독취 자료** ◆

☞ **서론**

▶ **중직자 개인이 전도 연결망을 만드니라.**
꼭 이것을 중직자는 하셔야 한다. 해보시면 여러분 생애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 **지금도 후회되는 것은 노가다 얘기를 이따가 하겠는데 노가다를 하니가 여기 저기에서 하게 되더라.** 돈 받아서 학교 가야 하는데 이 분이 돈을 안 준다. 제가 정보를 들었다. 절이 나빠서 잘 안 취서 누구도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한다. 그냥 참아야 하는데 옛날 전공이 나오더라. 밤 12시에 찾아갔다.

그 시간에 가야 반드시 있고, 충격 요법이 크기 때문이다. 옆씨인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다.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묻더라. 야, 나와! 라고 하니가 문을 연다. 돈 내놔! 이랬다. 그러니까 나보고 미쳤냐고 하더라. 안 주는 너가 미쳤지, 내가 왜 미쳤냐. 너가 안 주려면 마누라 데리고 다 나가라. 여기에서 자겠다고 했다.

한 시간쯤 지나니까 내일 당장 주겠다고 약속하더라. 내일 주면 집 나갈 생각하라고 했더니 다음 날 가져왔더라. 알고 보니 부신업의 큰 교회 옆00 목사 동생이더라. 내가 이런 정신으로 전도하면 욕 먹지 않냐. 후회하고 그런 짓 안 하기로 해야지, 안 주면 천천히 반으면 되는데 가서 협박하고, 옛날 전공인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 **행1:8, 벰전3:8-12**
중직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성경구절이 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또 뭐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축복을 내게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 또 뭐라고 되어 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나. 미래를 두고 한 말이다.

혀를 감하여. 그러면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평생 붙잡았다. 이거 안 붙잡으면 교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더라. 저는 이것을 붙잡고 지금도 완전하게 못해도 노력을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아까 말한 행1:8을 꼭 붙잡아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악한 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어른을 모셨는데 이 분은 너무 너무 경제의 문제가 많다.** 경제의 문제가 많은데 너무 교회 돈을 많이 이상하게 하셨다. 밑에서 일하는데 곤란하더라. 너무 심하게 그랬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 장로님들이 시험 든다. 어쩌면 좋겠나. 밑에서 일을 해야 하니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고. 가만히 보니까 기본이 조금 그런 것 같다. 대화가 잘 안 되고, 돈에 대해 사람이 좀 그렇다.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다.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마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이 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돕고, 후시 그런 쪽으로 도움 길이 있으면 도왔다. 어떤 목사님의 사정을 교회에 얘기하고, 목사님 후원도 해드리고, 그런데 이 분이 나중에 제게 마음 문을 열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 뒤에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간 곳이 영도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동삼제일교회다. 거기 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세계복음화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분들. 복음 가진, 축복 받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운동하게 되었다. 그 분은 굉장하게 어렵게 되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 **300%-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교회 가거든 목사님을 300% 도와라.** 그래야만 빨리 해결된다. 정말 해결 안 되면 그분 책임이다. 더 큰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락방 운동해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본다. 그게 더 빠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낮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다.

1. 만남

▶ **그렇게 하고 중직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지금부터 만남을 시작해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시간만 내도 된다. 장로님들이 만남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1)상담
▶ **신앙상담해서 힘을 줘라.** 이게 지교회 시작이다.

(2)새가족
▶ **그리고 새가족들이 있다.** 꼭 여러분 구역이 아니더라도 새가족구역을 돌아가며 만나봐라.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물론 만나서 불신앙 얘기하면 안 되지만 믿음을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상상 외로 어렵게 살고 문제가 많다.

▶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집사님이 하는 얘기와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장로님들은 그 사람 몰라도 그들은 다 안다. 그들을 불러서 상담하고 얘기해주는 것을 평생 잊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기만 해도 된다.

(3)Elite
▶ **교회 안에 보면 생각 외로 엘리트들도 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 들어가도록 도와줘라. 이게 시작이다. 한 시간이면 된다. 어떤 중직자는 답답하니가 불신앙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4)5인1조
▶ **5인1조를 왜 만들라고 하는가?** 이 말은 장로님들이 여러 분야에 통하고 소스도 얻고 램넨트도 이해하고, 여자 신도도 이해하는 게 5인1조다.

(5)중직자 전도기획팀
▶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는 전부 중직자들은 전도기획을 해라.** 전도기획팀으로 모으면 많은 답이 나온다. 1, 2, 3, 4번을 해봐라 중직자전도기획모임에 가면 답이 나온다. 많은 자료도 나오고, 많은 정보도 보이고, 깨달음도 온다. 이게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중직자시대에 누려야 할 축복이다. 절대 여기에는 걸리면 안 된다. 이 축복 누려야 한다. 그래야 중직자들이 살고 응답 받는다.

2. 시작

▶ **지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1)주일(교회)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교회를 하라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해야 하나고 한다.** 아니다. 지교회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과 상담을 계속하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아까 말한 만남이다. 두루두루 교회 안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보인다.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 시간 내서 밖에 나갈 필요없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나 대화해봐라. 이게 시작이다.

(2)제자
▶ **어떻게 하면 두 번째 것이 나온다.** 아주 중요한 제자가 보인다.

1)램넨트(담)
▶ **분명히 램넨트 가운데 담난 아이가 있다.** 빨리 뉘아채라.

2)다른 중직자, 권사, 안수집사
▶ **다른 중직자,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운데 담난 사람이 있다.** 우리 말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건 아무리 해도 인본 주위가 아니다.

3)아줌마
▶ **실제 전도 받은 아줌마들이 다 가지고 있다.**

▶ **이게 지교회의 시작이다.** 분명히 역사 일어난다.

▶ **지금 우리가 모범 케이스로 올해부터 학교교인 받기 전에 대안중학교를 시도한다.** 거기에 저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야 하지만 거기 가서 손해 보는 것도 많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엘리트들 키워보겠다고 해서 대안중학교를 시작한다. 건물, 커리큘럼, 교사. 다 준비되었다. 미리 직원들을 설득시켰다. 필요한 돈만 받아라. 운영해보고 남으면 돌려주고, 교육에 지장 갈 만큼 모자랄 때는 말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 키우듯이 해라.

▶ **그리고 애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야 한다.** 학교에서 1년 공부하는 것을 애들은 한 달이면 끝난다. 그래서 제대로 중요한 학과목을 빨리 하도록 만들고, 영어는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스스로 정하고 끝내는 엘리트들 만들어라. 그러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떨어뜨리면 된다. 요점은 엘리트만 뽑아라. 그게 열쇠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몇 명만 잡으면 끝난다. 장로님들이 이 눈을 번쩍 떠야 한다. 나머지 사람은 다 섬겨야 할 대상이고, 제자. 안 가서도 역사 일어난다. 마음 맞는 사람, 친한 사람 말고 제자가 있다.

▶ **전에 얘기했다.** 내 친구 가운데 무조건 서울대학만 보내는 선생이 있다. 물어봤다. 어떻게 보내느냐고. 간단 하단다. 시험

처보고 서울대학에 가능성 있는 애들만 붙잡고, 가능성 없는 애들은 집에 보내고. 자기한테 왔다 하면 무조건 서울대학에 보낸다. 그렇게 소문 났다. 헛소문인데... 자기가 보고 가능성 없으면 아예 안 한다고 한다. 하버드대학에서 역사 일어나는 이유, 똑똑한 애들만 부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계속 주일에 면담하고 도와주고, 오해도 풀어주고. 어떤 분은 늘 오해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해도 풀어주면서

(3) 롬16:23

▶롬16:23팀을 구성해라. 어떻게 하면 렘넌트 키우겠는가. 후원조직, 가이오와 그 형제 구아도...

▶여기까지가 지교회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다. 굉장히 축복 받게 된다. 사람이 진짜 축복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데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게 많고, 어떤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많다. 이런 눈을 떴어야 한다. 별로 안 중요한 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 많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안 중요하게 본다. 저는 작은 것에 별로 관심없다. 그런 것만 볼 줄 알면 안 가서도 된다.

장로님들이 다니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느 정도 뻗었기 때문에 많이 갈 필요 없다. 팀 구성해서 필요한 사람 구성하고, 메시지 받은 것을 잘 소화해서 전달해도 되는 조직이 짜있다. 신학원이니 뭐니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옛날처럼 무조건 뛰는 게 아니다. 이게 지교회다. 처음 장로님된 분들은 두려워한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것을 시작해라. 이게 나와야 지교회가 되는 것이다. 지교회당이 되는 것이다. 5인1조 만들고 계속한다. 이거 하다보면 이게 나온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사업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렘넌트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면 된다. 예를 들어 이동엽씨 같은 사람은 복음 받고 박주영, 이근호 다 키운다. 앞으로 좋은 선수들이 붙으면 복음운동도 되는 것이다. 굉장한 것이 된다. 좋은 선수들 될 게 분명한데 좋은 일꾼들이 자꾸 붙는다. 그 사람들만 키워도 후원도 되고 전도도 된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장로님들이 여러 파트의 전문인 붙잡아도 다른 렘넌트 도울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렇게 가이오팀이 구성된다. 여기까지가 지교회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3. 진행

▶장로님들이 지교회를 진행하실 때 중요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1) 행1:12-14 체포령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 굉장히 중요한 진행이다. 체포령이 내렸을 때이다. 옛날에 예수 따라 다니는 자를 다 잡아넣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다.

(2) 행6:1-7

▶곳곳에 중직자가 서야만 빛이 밝혀진다는 사실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큰 역사.

(3) 행9:1-43

▶이렇게 해서 행9:1-43에 보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가 깔린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4) 행11:19

▶행11:19.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중직자들이 뭉쳤는데 시대를 바꾸는 안디옥.

(5) 행13:1-4

▶시간표를 잘 보시면 행13:1-4. 드디어 아시아 문이 열리는 데 성령 인도 받으며 나아간다.

(6) 행16:6-10

▶어쩔 때는 문이 안 열릴 때가 있다. 이 때가 더 중요하다. 행16장에 전혀 낙심할 필요없다. 더 큰 문이 준비되었다. 마게도나.

(7) 행19:21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왔을 때이다. 우리는 응답오면 괜히 응답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

▶이런 부분이 중직자가 시작해야 할 부분이다.

▶정말 기도 응답은 기도제목없는데 받는 것이다.

(1) 임마누엘(성령)

▶정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정말 기도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2) 응답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기도 안한 제목인데 응답 온다.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응답이다.

(3) 감사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 속에 감사가 나온다. 이게 진정으로 쌓이게 된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이다. 진정한 감사한다면 그렇다. 물론 장난삼아 많이 하면 되지만 진짜 하면 역사 일어난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더라. 진정으로 감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

은 내 영혼이 굉장히 치유와 힘을 얻었다는 말이다.

▶장로님들이 특히 이 부분만 잘 보셔도 된다. 이렇게만 해도 제자가 묶여지면 그 때부터 제자에 따라 지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세워도 된다. 군데 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마6:33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기도 안 했는데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는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data.darak.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